시벨라

벼룩 한 마리도

피비

그인 못 죽여요

시벨라

제발 살려줘요

시벨라 & 피비

오, 몬태규 다이스퀴스 나바로
결백하답니다

#22A "곤경에 처했다 (A BIT OF A BIND)"

(두 여자를 그들의 방에 남겨두고, 경감과 치안판사는 서로를 만나로 안다. 음악, 다음의 대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흐른다.)

치안 판사

경감, 글쎄, 누가 날 만나러 왔는지 아나, 이 기막힌 타이밍에?

핑크니 경감

나도 똑같은 말 하려고 했는데!

치안 판사

범인은 시벨라 홀란드야!

핑크니 경감

범인은 피비 다이스퀴스야!

(둘 다 모두 혼돈스럽다.)

치안 판사

피비 다이스퀴스?

핑크니 경감

시벨라 홀란드?

치안판사 & 핑크니 경감

(함께:)

여기 증거!

(사이, 그러더니 동시에:)

확실한 거야!

핑크니 경감

아니, 둘 다 범인일 순 없잖아.

(두 사람이 편지를 교환한다.)

치안판사

(읽으며:)
“친애하는 몬티…”

핑크니 경감

(읽으며:)
“몬티 내 사랑…”

치안판사

“백작을 독살한 것은 *나*였어.”

핑크니 경감

“당신의 자리, 돌려 받아야 했으니까.”

치안판사

신기하군!

핑크니 경감

편지를 중간에 가로챘다고 하던데..

치안판사

…몬티 나바로한테 전해지기 전에!?

핑크니 경감

둘 다 혐의가 있으면, 한 사람만 체포할 순 없지.

치안판사

불법이니까.

핑크니 경감

배심원이 판결을 못 내리지.

핑크니 경감 & 치안판사

(일치단결하여:)
그렇지.

핑크니 경감 & 치안판사

어쩌지.

(그들은 상대방의 심문실로 들어간다.)